

사회

광주, 중학교 학교폭력 전국 1위

100명당 0.62건... 예방·생활지도 중학생에 집중돼야

충동적 사춘기·성적위주 교육 강요로 빈발

광주지역 중학교의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2~3배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에 공개된 지난 2010년 전국 16개 시도 중학교 학생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학생 100명당 폭력 발생 건수는 광주가 0.62건으로 대구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은 0.52건, 경기도 0.42건, 인천 0.38건, 부산·울산 0.31건 등의 순이었다.

구별로는 북구가 0.7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구 0.67건, 동구 0.65건,

광산구 0.63건, 남구 0.37건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 심의 건수 평균도 5.1건으로 대구 5.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전국 평균 2.26건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와 함께 중학교의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고등학교나 초등학교의 3배 이상으로, 중학교가 학교폭력의 '화약고'로 지목되고 있다. 몸집이 커지고 집단 문화에 익숙해진 시기인 중학생 시절에 폭력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 의원이 공개한 '2011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학교 폭력 전체 가해학생 수는 956명으로 중학교

709명, 고등학교 238명, 초등학교 9명으로 중학교가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 비해 각각 2.9배, 7.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중학생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신체 발육이 왕성하고 충동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입시에 전념하는 고등학생에 비해 학교의 통제와 상대적으로 적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실제 고등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 등을 이유로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통제하지만 중학교의 경우 입시 등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작다. 때문에 충동적인 사춘기 학생들은 또래 친구들과 집단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중학교 때부터 성적위주의 교육을 강요하는 잘못된 제도도 문제다. 신체 발육이 왕성한 중학생들의 경우 체육활동 등을 통해 욕구를 해소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등의 질서인식을 배울 수 있지만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욕구불만이 폭행과 괴롭힘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인성복지건강과 정종재 장학사는 "중학생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정신·신체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학교 폭력 대책 회의를 진행하면서 중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면 학교 폭력 발생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이를 관련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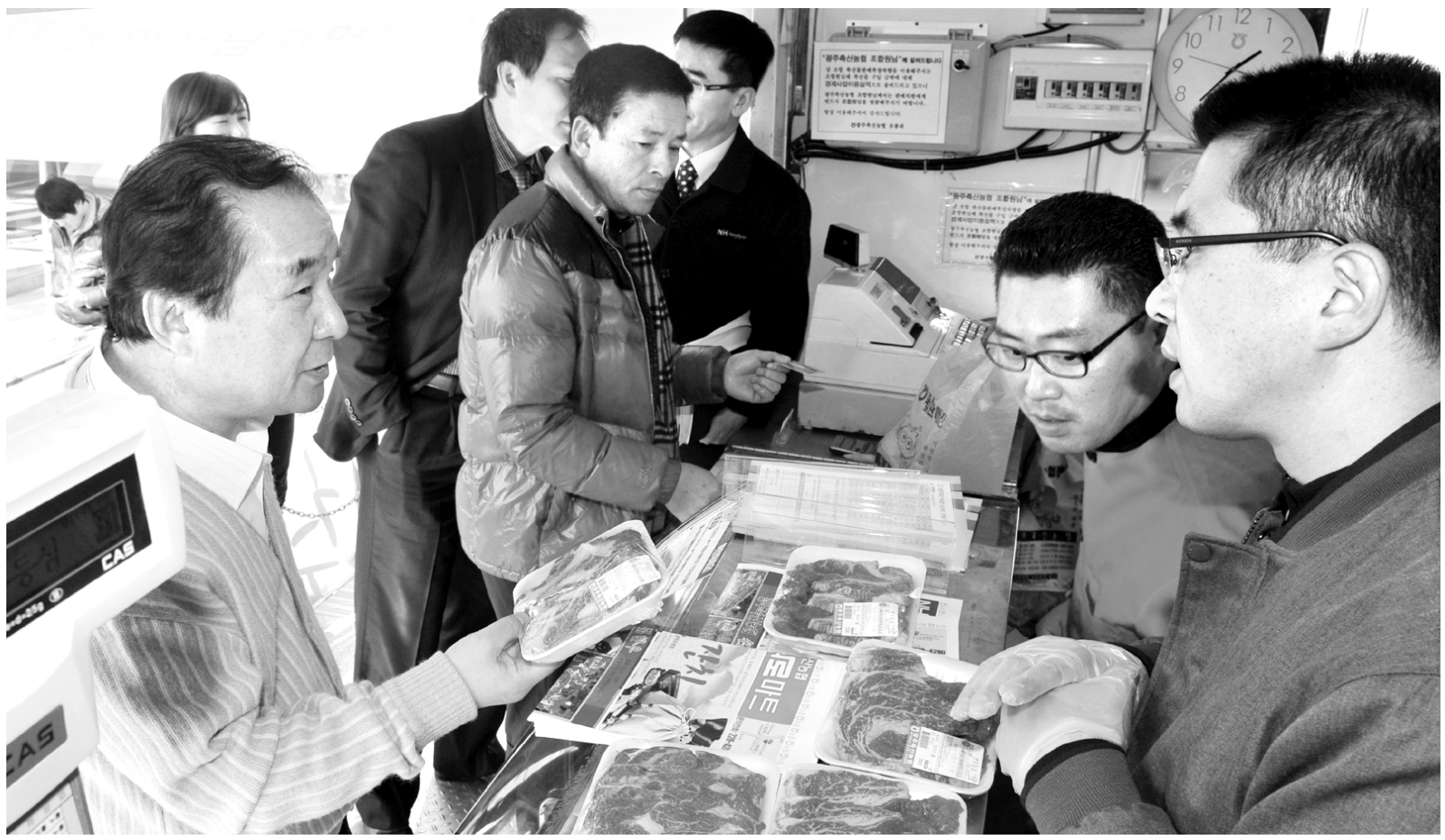
광주시교육청 인성복지건강과 정종재 장학사는 "중학생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정신·신체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학교 폭력 대책 회의를 진행하면서 중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면 학교 폭력 발생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이를 관련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인성복지건강과 정종재 장학사는 "중학생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정신·신체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학교 폭력 대책 회의를 진행하면서 중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면 학교 폭력 발생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이를 관련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인성복지건강과 정종재 장학사는 "중학생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정신·신체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한우 직거래장터' 개장
역분부와 함께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10일 청사 앞 뜰에 개장한 '한우 직거래장터'에서 직원들이 한우를 구입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소 값 하락, 사료비 증가 등으로 이종고를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해 농협전남지역분부와 함께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나이롱 환자·병원장 등 무더기 검거

치료 내용 속이고 허위 입원 보험금 타내

광주 남부경찰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료를 타낸 병원장과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은 10일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료를 청구한 남구의 모신경외과의원 병원장 오모(56)씨와 환자 이모(여·26)씨 등 29명을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입원치료 내용을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42개 보험사에서 1억 43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외과병원을 운영하는 오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1년여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환자를 입원치료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보험공단에 28차례, 1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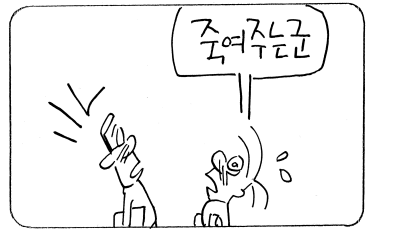
또, 이씨 등 병원 환자 28명은 입원위로금 등 특약이 걸려 있는 보험에 집중 가입해 오씨의 병원에서 입원진단을 받은 후 42개 보험사에서 약 1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오씨 병원이 입원환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 서류상 입원은 했으나 실제로는 출퇴근 등 바깥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허위 입원 환자들에 대해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해 의료보험료를 청구하는 병, 의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원침 (8479) 김장두



농민 등친 단위농협

전국 50여곳 대출자 동의없이 금리 인상

수십억 부당 이득... 광주·전남도 조사중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또 다른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지역 단위농협들에서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대출비리가 저질러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대출비리로 인한 농민 등의 피해액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수부는 지난달 농협중앙회로부터 전국 50여곳의 단위농협에서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십억~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관행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한 감사자료 일체를 제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부는 이 가운데 대출비리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수도권, 부산 등의 단위농협 7곳을 일차 수사선상에 올려놓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부는 해당 단위농협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관할 검찰청별로 사건을 배당해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

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일부 단위농협에 대해서도 자체 고소 등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중앙회는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미 대출 비리에 연루된 수십명의 단위농협 임직원들에게 해임 등 징계 조치를 내린 상태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책임자급과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는 직원을 가려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횡령·배임 등의 다른 비리와 상급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농협 대출비리 수사는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과천농협 김모(58) 조합장 등 3명을 구속하면서 본격화됐다. 과천농협은 지난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함에도 임의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인상해 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교비횡령·리베이트 수수

광주 사립대학 간부 구속

차명계좌로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는가 하면 교비를 횡령한 광주 사립대학 간부직원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수사2계는 10일 "대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광주 모 사립대학 전 총무처장 김모(55)씨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월에 대학에 무상으로 설치된 교환기를 정상구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교비 1억96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각종 학교 공사를 수의 계약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4개 업체로부터 모두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대학과 거래하는 업체들에게 계약 대가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가 하면 업체 대표와 친분이 있을 경우 업체가 제출한 견적보다 낮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협박 혐의 김태춘, 경찰에 '출석 불가' 진단서

기업인 협박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폭력조직 범서방과 두목 출신 김태춘(62)씨가 최근 경찰에 진단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은 김씨측이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를 보내왔다고 10일 밝혔다. 김씨측이 보낸 진단서에는 "2월 22일까지 안전자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경찰은 그동안 김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지만 김씨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고 자진해서 이같은 진단서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4월 지역의 한 중견기업 이사 김모(48)씨로부터 '투자한 업체가 어려워져 돈을 못 받게 됐다. 사업 투자금 25억원을 되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또다른 기업 대표인 한모(57)씨를 찾아가거나 호텔 객실 등으로 불러내 투자금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포착,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과정에 건장 체격의 사내 3~5명과 동행했던 점을 주목, 그동안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동행했던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진단서 내용을 감안, 김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소5마리 또 굶겨 죽어 순창 농장서

지난 3일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해 소 10여 마리가 굶겨 죽은 순창군 농장에서 또 5마리의 소가 아사했다.

1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 문동연(56)씨의 농장에서 5마리의 육우(젖소 수컷)가 지난 3일 이후 추가로 굶겨 죽었다. 도는 사료 값 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문씨가 최근에는 물밖에 주지 못해 이들 소가 영양실조 등으로 아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땅에 묻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10여마리의 소도 아직 매립하지 않고 방치해 전염병 우려도 낳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공무원·대기업 취직시켜 줄게"

4명에게 6000만원 행거 취업 사기 친 50대 구속

전남지방경찰청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채용해줄겠다고 금품을 가로챈 류모(52·무직)씨를 구속하고, 공범 김모(52)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박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류씨와 김씨는 지난해 3월 먼 친척인 피해자 류모(58)씨의 아들을 광주 한 구청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시켜 준다는 2000만 원을 받는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공무원이나 대기업 취업 일선 명목으로 모두 6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류씨 등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접근해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취업시켜줄 것처럼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자신의 자녀가 채용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진술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며 "공범인 김씨를 붙잡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제난에 편승한 취업 사기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순간 욕심 못이겨- 동료 금반지 슬쩍

순간의 욕심을 못이겨 같이 일하는 동료의 금품을 훔친 20대 여성이 경찰서행.

○10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결혼식을 돕는 일명 '헬퍼'로 웨딩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A(23)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에 광주시 동구 모웨딩업체 2층 드레스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동료 종업원 B(여·25)씨의 커풀링 금반지와 현금 250만원 상당을 훔친 것.

○경찰은 사건 직후 A씨가 B씨에게 전술한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역주적하고,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고 검거.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학편입 정원 대폭 증가!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재학		출입시기
고등교과목 전과목 (약 16과목)		준비과목
각 군별 1회 지원		복수지원
		3학년입학 / 2년재학
		영어(인문) / 영어,수학(자연)
		대학별 지원(최대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ng.co.kr 개강: 2월1일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 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